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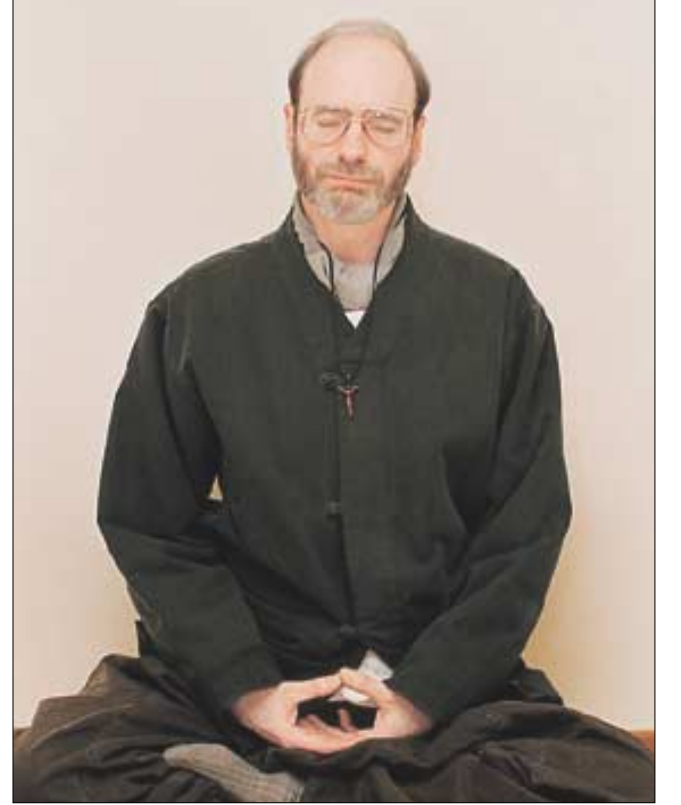


‘성철禪연구’ 폭 빠진 서명원 프랑스 신부

“저는 전생에 한국의 스님이었나 봐요. 증생교화를 위해 서양에 태어나기를 서원했는데, 구교 집안에서 태어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죠.”

10여년째 한국에서 참선하며 성철(性徹: 1912~1993) 스님의 선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예수회 소속의 서명원(한국명, 본명은 Senecal Bernard) 신부. 84년 서강대학교의 요청으로 한국으로 온 후 무당배와 어울리던 그가 왜 해인사의 성철 스님을 만났는지,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너털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인연, 인연이라.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왔다 갔다 한거라고나 할까요. 그리스도교 언어로 하자면 ‘주님의 섭리하심’이라 말할 수 있죠.”



◇참선수행 경력 7년의 서 신부는 아침, 저녁 1시간씩의 좌선으로 하루를 열고 닫는다.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성철 스님의 제자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서명원 신부는 ‘확철대오’ 하는 일이 살아있는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의 컴퓨터에는 성철 스님에 대한 10여년간의 연구성과가 고스란히 저장돼 있다.

“성철스님, 알면 알수록 궁금해요”

나는 전생에 한국의 스님?

2월 6일 경기 여주의 한 수도원에서 어렵게 서명원 신부(51)를 만났다. 큰 키에 선한 모습을 한 그는 예의 바른 모습이 영락없는 한국 사람이었다.

“성철 스님을 알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10여년전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쓴 책 <The Zen Monastic Experience>를 읽은 후였어요. 송광사 구산 스님의 제자였던 저자는 주로 보조지눌 스님의 돈오점수(頓悟漸修)에 대해 기술했는데,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하는 성철 스님의 사상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접하자마자 바로 이 것이 내 박사논문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하게 됐죠.”

1984년 여름 서강대 한국예수회 초청으로 방한한 그는 한국에 잠시 머물다 85년 가을에 다시 왔다. 5년간 살다가 90년부터 95년까지 다시 프랑스에서 공부한 후 95년 12월말 귀국해 지금껏 머물고 있다. 캐나다 케벡주 몬트리올 태생인 그는 25세에 프랑스의 한 의대를 자퇴하고 79년 가톨릭에 사제로 입회

(入會)했다. 가톨릭 수도회 신학대학에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파리7대학 한국문화와 박사과정으로 수료(한국불교 전공)하고 박사학위논문으로 마그리니(Paul Magnin) 교수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듯이 무모하게 성철 스님의 위대한 사상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어요. 독서백편의자현(책을 백 번 읽으면 그 뜻이 스스로 드러난다), 위편삼절(緯編三絶: 가족으로 맨 책 끈이 세 번이나 끊어 끊어지다)의 심정으로 스님의 저서를 열독하고 있어요. 단순한 지식이나 스님의 수행방식을 몸으로 체득하고 싶어요.”

왜 성철 스님이 노년에 돈황본 <육조단경>을 번역하면서 각주와 지침을 달았는지, 산꼭대기에 오르려면 기술부터 올라가야 하듯, 성철 사상의 전모를 알기 위해서는 꼭 넓게 스님의 저서를 읽어야 했다. <육조단경> <백일법문> <한국불교의 법맥> <선문정로> 등 성철 스님의 주요 저서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책이 닳을 정도로 읽고 또 읽었다. 이제는 아침 5시 좌선 시간에 앞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암송할 정도로 체득이 된 상태다.

그가 컴퓨터로 작업중인 논문을 보여주었다. 논문의 서문부터 빼곡한 한문과 산스크리트어, 불어, 영어, 한국어, 일어, 중국어가 일사불란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방인이 한국 불교를 모국인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순간, 전율이 느껴졌다. 그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번역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일 새벽 5시, 1시간 참선

이방인이 본 성철 스님은 어떤 분일까. “성철 스님은 역시 가야산 호랑이였어요. 자신이 뛰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무리를 뛰어넘는 정법안장을 갖춘 분(越群正眼)’이라고나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성철 스님의 사상을 머리로는 연구하지 않는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경당(기도실)’이라고 쓰여있는 방에서 참선을 한다. 스스로 죽비 한번 치고 절을 한 다음, 종을 세 번 친후 1시간 참선한다. 하루 일과를 마친 밤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앉은 힘으로

생활속에서도 회두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참선과 공부가 융합되기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선교일치(禪教一致)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논문을 쓰면서 파악한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럴 때 마다 ‘놀아둠’으로써 저절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토로한다. 꼭 마칠 때면 고양이 생선을 노리듯 회두에 집중한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문제의 답은 저절로 떠오른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있다.

서명원 신부가 한국의 참선단체인 선도회와 인연이 닿은 것은 96년 말. 처음에는 참선 수행모임이 있다는 말을 가볍게 들었는데, 이제는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가하는 문이 되었다. 선도회 박영재(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지도법사는 그보다 10여년 전 기종의 선사 개념과는 다른 분이었지만, 그법명은 天運을 깊은 불교의 세계로 이끈 스승이었다. 성철 스님의 제자를 자임하는 서신부는 ‘확철대오’를 서원하고 있다. 나날이 깨어져 가는 자신을 보고, 지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매일여의 경지가 될 때까지 정진하고자 한다. 성철 스님의 제자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서명원 신부는 예수 역시 확철대오 했다고 믿

는다. 성철과 예수 사이에는 문화권의 차이에 따른 표현방식이 달랐을 뿐, 근원적인 깨달음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육조단경>에서 설하기를,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얻는 것이 없나(不識本心 學法無益)’라고 했습니다. 끝없는 수행을 통해 불자가 살아있는 부처가 되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도 수행을 통해 살아있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선문정로 등 불어로 번역 계획

불현듯, 서명원 신부가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 이 곳이 ‘스승 예수의 제자 수도회’의 수도원이라는 생각이 떠올라, 보편적으로 궁금해 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스도의 영성과 불성이 같다고 보세요?”

“주-객관이 사라진 무차별의 세계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차별로 돌아와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무차별계에서는 색즉

시공(色即是空)이요 공즉시색(空即是色)이지만, 차별계에서는 공은 공이요, 색은 색일 뿐이니까요. 성철 스님의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말씀처럼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결국 부처는 부처요, 예수는 예수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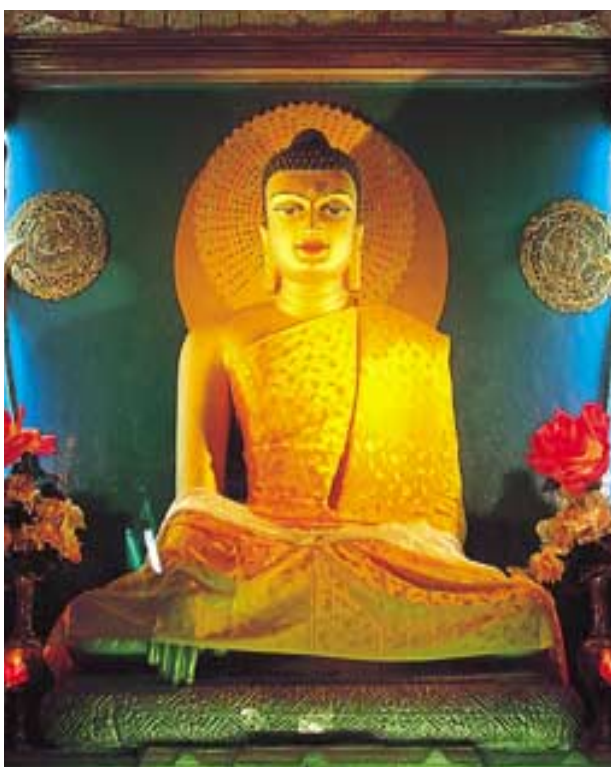
“유화회와 같이 아니하고, 같도 못 유화하지 않는데(和而不同 同而不和)’는 말이 떠오른다고 하자, 바로 그거라고 맞장구친다. 모든 존재의 고유함을 살려주면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주체성을 가진 화합이라고나 할까. 서명원 신부가 지금 이 땅에서 퇴옹당(退翁堂: 성철 스님의 법호)에 빠진 이유다.

서명원 신부는 올해 안에 논문을 다 쓴 후 <선문정로> 등 성철 스님의 저서들을 불어로 번역할 계획이다. 모국어 불어를 통해 성철 스님의 사상을 완전하게 표출하기는 어렵겠지만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조화로움 만남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글=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 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실�크로드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성지순례는 구법의 여정입니다. 구법의 여정에는 올바른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제1의 불자 여행사가 되겠습니다.



인도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인의 항마촉지인 부처님

불교성지 중에서 특히 인도성지는 부처님께서 전 생애를 나투신 장소로서 출가, 설도, 교화, 열반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곳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느끼고 기도를 드리는 첫스로운 여정에 동참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청진하며 보다 뜻깊은 순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상원 함장

3월 부터는 알뜰 인도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알뜰 인도 성지순례 10일(3월 20일 출발)  
부처님 8대성지(3월 특가 1,690,000원)

캄보디아 태국순례 6일

세계의 불가사의 유적인 앙코르와트를 순례하는 일정  
3월 21일 출발 (799,000원)

스리랑카 순례 6일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의 불교유적  
싱그러운 밀림과 불교 고대유적지, 불치사승 순례  
3월 26일 출발 (1,490,000원)

티베트 수미산 순례

불교 경전상에 수미산은 신비의 성산으로 많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경전상의 모델이 되는 수미산이 티베트의 오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티베트의 라사로부터 5일을 가면 수미산에 이릅니다. 수미산은 지구의 중심으로 신비한 모습으로 강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티벳인들은 부처님의 세계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수미산은 고산증세 등으로 다년간의 경험 없이는 매우 힘들고 위험한 곳입니다. 저희는 철저한 준비로 이변에 제 5차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티베트의 성산 수미산 (중심에는 부처님 사리탑이 있습니다)

◆수미산 순례 22박 23일

●출발일: 6월 3일  
●일 정: 인천-성도-라사-시가체-라체-사가-파양-마나시로바호수-수미산-파양-사가-장무-카투만두-인천

◆티베트 일주 10박 11일

●출발일: 5월 17일, 6월 3일  
●일 정: 인천-성도-라사-간체-시가체-라체-장무-카투만두-인천

(주)실�크로드 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TEL:(02)720-9600